

Vol. 235

2021 11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9)

박해와 선교현장
터키 (Turkey)

심화현장
에리트레아 투옥자 교회지도자들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오픈도어를 통해 맺을 열매

김경복 선교사 (한국오픈도어 사무총장)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15:8)*

20년만에 오픈도어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지난 해 5월 재배치되었던 선교지에서 철수하면서, 그 동안 꿈꾸어 온 농촌의 공동체 회복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향했다. 요즘 농촌에서는 공동 작업과 품앗이 같은 전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동네에 초상이나도 부의금만 전달하는 정도이지 서로 도와 장례를 치르는 미풍양속(美風良俗)은 완전히 사라졌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이웃의 도움을 청할 필요도 도와줄 필요도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농기계 보급이 보편화되어도 사람의 손을 기계가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땀 품앗이 대신 인력시장에서 노동력을 사서 일당으로 해결하곤 한다. 모든 것이 돈이 해결하는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이미 농촌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 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교회조차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말 희망을 찾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

저의 고향 김천은 포도 농사가 보편화 된 곳이다. 요즘 핫한 샤인 머스켓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재배한 곳이기도 하다. 덕분에 농가의 소득도 크게 증대되었다. 여러모로 궁리한 끝에 포도농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비록 기계의 힘을 빌리긴 했으나, 겨울내 땅을 일구고, 봄에 묘목을 심었다. 매일 새벽마다 포도원을 돌아보며 생육상태를 살폈다. 한날 한시에 심었어도 자라는 것은 천차만별 제 각각이었다. 발육상태가 좋아 건강하게 자라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언제 싹을 틔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놈도 있었다. 농부의 맘은 애가 났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일까? 미숙 퇴비로 독가스 피해

를 입은 것인가? 그래도 발묘조장(拔苗助長)을 할 수 없지 않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셨다. 농부의 수고는 열매를 보기 위함이다. 한여름을 인내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도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인 이유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것도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오픈도어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올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물을 주었던 포도밭에서 깊은 묵상에 잠겼다.

“나는 오픈도어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안암동 오픈도어 사무실에 출근하여 첫 업무를 시작하던 그날 깊은 감동이 있었다.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며 이 영적 전선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열매를 보게 된 것이다.

“오픈도어 월간 소식지와 기도월력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자매로부터 문자가 왔다. “혹시 어떻게 오픈도어를 알게 되셨나요?”

“예수원에 3박 4일 있다가 서울 돌아가는 길인데요, 비치되어 있는 9, 10월 소식지를 읽으며 많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오픈도어 사역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 같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못하던 제가 덕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요청을 부탁하는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 동안 한결같이 오픈도어를 섬겨 오신 이사님들과 이 일을 받들어 섬긴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제 가슴을 울렸다. 우리가 전세계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 버리지 않는 한 오픈도어의 사역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동안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며, 모든 삶을 드려 고난 받고 박해 받는 성도들을 섬겨 오신 오픈도어 가족들에게 일일이 찾아 뵙진 못하더라도 이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OpenDoors 7가지 핵심 가치



- 0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02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03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04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05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0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07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9)
- 08 박해와 선교현장 - 터키
- 14 사역보고 -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 크리스천 1000가정 구호
- 16 심화현장 - 에리트레아, 투옥자 교회지도자들 기도 요청
- 18 현장스토리 - 소말리아 ‘파투마’자매 이야기
- 21 WWL2021 기독교박해 국가를 위한 기도
- 22 희망의선물 2021 캠페인
-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2021년 11월호 통권 235호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근,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김혜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9)

- 재판 선고, 교화소 입소 -

마리아 자매

재판 후 열흘 간의 의미 없는 상소 기간이 지났다. 예심 때 담당 형사에게 13년 형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4년형에 그쳤다. 참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서 나온다는 기약을 할 수조차 없는 이 길을 걷는다는 심정에 북받쳐 밤마다 차가운 감방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너무나 그리웠던 남편은 면회 한 번 안 왔다. 필요한 옷도 있고 물건도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추었다. 기다리다 지칠 때 즈음 담당 예심원이 나에게 면회 물품만 전달해주었다. 알고보니 만나지 못하게 막은 것이었다.

봄이 시작될 무렵 풍막이 쳐있는 호송차를 타고 족쇄에 묶여 두 시간 정도 이동을 했다. 도착한 곳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화소였다. 웬지 낯익은 이곳은 10년 전 남편과 함께 사냥을 하면서 움막에 살았을 때 이웃 할머니 부탁으로 아들 면회 음식을 대신 전달해주었던 곳이었다. 그 때는 눈이 허리만큼 왔던 한겨울이었다. 이곳에 내가 죄수로 오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정문에 내려서 십 분정도 걸으면 이 미터가 넘는 철 대문이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마치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렸다. 아주 무겁게 열렸다. 마치 내 마음의 설움처럼... 천천히 열리는 육중한 철 대문을 바라보며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다. 철 대문 옆에는 ‘도주는 자멸의 길’이라는 문구가 커다랗고 빨간색으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또 이 미터가 넘는 높이에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아주 요란했다. 새들이 앉

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떨어져 죽었다.

이후 몸 검신이 시작되었다. 오랜 구류장 생활 동안 지긋지긋하게 해왔지만 여전히 수치스러웠다. 가지고 온 옷들은 모두 반납하게 되어있었다. 실상 교도소 경찰들도 생활이 어려워 압수한 물건들 중 좋은 물건들은 빼돌렸다. 그 정도로 북한의 경제가 참으로 어려웠다.

밖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있던 교화소 죄수들 중 몇 명이 눈에 띄었다. 오후가 되었지만 일하러 나가지 못한 열외 죄수들이 마당에 소집된 것이다.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루하고 누추한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뼈에 가죽을 씌운 마냥 앙상한 그들을 보면서 절망감이 들었다. 머리에는 전장의 간호사처럼 흰 수건을 썼는데, 그 모습을 보니 웬지 흉투성이 전쟁통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을 때 교화소에서 죄수들에게 회색 죄수복을 모두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 사정도 좋지 않을뿐더러 죄수들도 많아져서 다른 방식으로 죄수들의 옷을 마련한다. 죄수들이 처음에 입고 왔던 옷들을 모두 세 부분으로 자른 후 서로 바꿔서 다시 입는다. 그렇게 하면 혹시나 도주해도 누가봐도 죄수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띈다. 삼색 윗도리와 삼색 바지를 입은 나의 모습이 참 처량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뼈다귀만 앙상히 남은 기존 죄수들처럼 흰색 수건을 머리에 쓰고 머리카락은 귀 위까지 깎았다. 공민권이 박탈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수



증을 제출한 뒤로 사람 취급도 받지 않으니 더군다나 남자 여자를 구분할 필요조차 없던 것일지도 모른다.

처음에 교화소에 들어왔을 때에는 할 것이 참 많았다. 삼색 옷을 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덕기준, 일상생활 기준표 등 여러가지 규율을 암기해서 검사를 받았다. 낮에는 공부할 때도 있었고 외부작업도 나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깨진 사기 세면대 같은 곳에 물을 담아 세수를 했다. 더운 물이 없어서 한겨울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얼음같은 물로 세수를 했다. 밤 10시까지 몸 또는 정신을 혹사시켰다. 다행히 감방 바닥은 예전에 있었던 구류장보다는 파듯한 편이었다. 아무래도 장기수들은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야하므로 기본적인 설비는 갖추어져있는 것 같았다. 주변이 다 산이고 나무밖에 없어서 그런지 땀나무를 해서 아궁이를 때면 바닥이 파듯했다.

이 곳은 약육강식이 도사리고 있는 짐승 같은 세계였다. 사기, 강도, 매춘, 인신매매, 살인과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잡혀온 사람들이 한 방에서 지냈다. 죄수들의 눈빛부터가 달랐다. 밖에서는 천하를 호령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영락없는 뼈다귀가 되어버린다. ‘너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힌다’가 이곳에서 살아

남는 비결이 된다. 장기수들은 신입을 보기만 하면 못 되게 굴고 텃세를 부린다. 그 와중에 허약자로 판명되어 온 몸에 뼈밖에 안 남은 장기수들조차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모습을 볼 때면 무섭기는커녕 이빨 빠진 호랑이마냥 우습고 또 절망스럽다.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하는 공포심과 불안함이 들곤 했다.

왜 감옥에서는 ‘콩밥’을 주는지 이 곳에서 깨달았다. 콩은 죄수들이 주된 영양소를 섭취하게 해주는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이다. 단지밥에 콩이 스무개 정도는 되어보였는데 그마저도 생활이 어려운 간수들이 밤에 몰래 훔쳐간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은 콩이 비정상적으로 적었다. 그런 콩밥에 까끌까끌한 옥수수겨를 섞어서 주었고 쌀에는 돌이 많이 섞여 있었다. 교화소 기간 내내 돌밥을 계속 먹어서 이가 많이 상했다. 옥수수 겨는 영양가가 전혀 없는지 화장실에서 그대로 나왔다. 일명 ‘까마귀날개국’이라고 불리는 시라지국은 염기가 아주 조금 있고 간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 ‘까마귀날개’는 양배추의 가장 윗 껍데기 부분인데 너무나 질겨서 짐승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칼로도 잘 잘리지 않아 도끼로 자르고 절여서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부실한 식사 때문에 허약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영양실조도 흔했다.

내가 있을 때는 하루에 두 명씩 죽는다는 소문도 돌았다. 당국에서는 아사에 대비를 해야했는지 허약자들에게 쥐를 먹이기 시작했다. 감옥 내의 유일한 보양식인 썸이었다. 쥐를 잡아서 내장을 제거하고 털을 불 피워서 짚고 삶아서 주었다. 때로는 밥이 다 떨어져 저녁 식사를 그냥 건너뛰는 적도 있었다. 저녁 내내 졸졸 굶다가 취침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식사를 주었다. 식사할 것도 없이 인근에서 쌀을 빌려다가 불릴 대로 불려서 죽을 쑤어 주면 죄수들은 한밤 중에 일어나서 후루룩 마시고 다시 잠에 들었다.

나는 이러한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6개월이 넘게 걸렸다. 영화에서나 보던 콩밥을 내가 먹는다는 사실이 영실감이 나지 않았다. 철창에 앉아서 생각만 해도 막막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그 때 나는 심한 방광염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은 커녕 제대로 된 약이나 주사 하나 구하거나 치료받을 수 없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면회 날에 드디어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은 깨진 사기그릇에 물을 받아 세수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세수대야를 가져왔고 평평이 가루와 약도 챙겨왔다. 남편은 내 생일 때 다시 면회를 오겠다고 했다. 나는 다음에 올 때 주사를 꼭 챙겨와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이 싸준 도시락이 참 맛 있었다. 그 당시 ‘사회음식’은 정말 영영 잊을 수 없는 별맛이었다. 남편이 한 번 왔다 가면 그것으로 한 달을 버텨내었다.

한달 남짓을 신입반에서 신입 교육을 받은 후 각 전문분야에 배치되었다. 나의 이름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가 11번’과 같은 죄수번호가 나의 정체성이었다. 교도소 안에는 열 개의 반이 있었고, 나는 감자농사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 한 일은 두꺼운 천으로 엄청나게 큰 가방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 가방 가득 겨우내 언 똥을 나를 줄은 만드는 당시에는 몰랐다. 그나마 신입반 때가 가장 편안했던 것 같다.

신입반을 벗어나니 한 방에 오륙십 명의 죄수가 머무는 감방으로 옮겨졌다. 나를 신입이라고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이층침대 방으로 들어갔다. 아침 5시에 기상벨이 울리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야 했다. 계호원의 얼굴이나 눈을 쳐다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침저녁으로 인원 점호를 하며 도망자가 없는지 점검하였고, 한 명이라도 틀리면 다 같이 벌을 받는 군대식 시스템이었다. 아침 점호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옷을 차려입고 나가서 일할 준비를 했다. 나는 얼굴에 겨울수건을 두르고 똥배낭을 메었다. 단 지갑이 나오면 식사를 하고 8시에 밖에 나왔다. “출력!”이라는 소리와 함께 우리 반의 모든 죄수들이 줄을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밖으로 나왔고 몸을 숙이고 뒷짐을 지고 섰다. 점수실과 복도를 지나 바깥으로 나오면 옆을 보면서 “하나!”, “둘!” 하며 점호를 하였다. 말 그대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점호만 계속하는 것만 같았다. 도망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심지어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담당형사가 권총을 차고 다녔고, 군복무하는 초병, 즉수행원 두 명은 장총을 들고 다니며 약 백 명정도를 관리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취미였다. 도주하면 쏘라고 준 총 개머리판의 그 딱딱한 나무부분으로 죄수들을 때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죄수들을 푸른 하늘을 볼 자격이 없었다. 옷을 수도 없었으며 간수와 죄수는 하늘과 땅 차이로 알았다. 내 죄수번호를 부르면 전속력으로 달려가 계호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다. ‘차렷!’ 자세가 고개를 숙이는 자세였고



‘쉬어!’ 자세가 고개를 편히 드는 자세였다. 그래도 얼굴을 마주볼 수 없었다.

나가서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남한에서는 기계로 하면 될 일을 북에서는 손작업으로 하루종일 걸려서 했다. 작업장 땅을 곡괭이로 메기도 하고, 한 톤짜리 구루마에 언 똥을 싣고 얼음장과 같은 강물을 바지를 걷어올리고 건너서 강 건너편 밭으로 이동했다. 정말이지 물이 너무나 차가워 밭을 딛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만 같았다. 옥수수, 감자, 콩 등의 다양한 농작물 반이 있었는데 그나마 감자반 담당 형사가 그나마 제일 너그럽고 좋았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봐주었다가 시라지죽이나 옥수수가루 삶은 죽을 한 그릇씩 주었다.

봄은 밭을 갈고 본격적으로 감자를 심는 계절이었다. 감자 씨앗이 몇 톤씩 준비되어 있었다. 땅굴을 파고 사다리를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보면 땅 밑에 널찍한 움이 무너지지 않고 판자로 설치되어있었다. 씨감자를 그 곳에 얼지 않도록 보관해놨다가 봄에 심는 것이었다. 죄수들이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생감자와 생옥수수를 입에 우겨넣고 먹었다. 끓이지도 삶지도 못하고 날 것을 그냥 먹었다. 움에 들어가는 날만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그렇게 몰래 먹었다. 10년 이상 감옥생활을 했던 장기수들은 감자 씨를 뜨고 그 조각을 지정된 선반에 깔아놓는 역할을 한다. 좋은 장기수를 만나면 감자가 섞인 부식을 주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별미였다.

해가 길어지면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자투리 시간이 있었다. 가끔 그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내다보고는 ‘내가 과연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탄식했다. 저녁시간이 끝나면 교양시간이 시작되었다. 재교육의 의미로 자기 전까지 학습을 시키면서 ‘교양 개조된 몇몇한 공민’으로 자리잡도록 공부시켰다. 낮 동안의 강한 육체노동 이후에 더운 방에서 가만히 공부를 하려니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고달픈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도 침대에 누워 쉴 수 없었다. 죄수들이 자는 침대는 빈대, 바퀴벌레, 쥐와 이의 온상이었다. 샤워는 커녕 세수나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이 형국에 위생관리는 전혀 되지 않았다. 우스갯소리로 한쪽 발은 점심에, 다른 쪽 발은 저녁에 씻었다. 심지어는 감자밭 옆에 강이 흐르는데 씻을 시간을 1분도 주지 않았다. 더욱이 감방 안에 화장실도 있었으니 똥속까지 똥냄새가 났을 것만 같았다.

위 아래로 각각 몇 십 명이 머리와 발을 엇갈려 누웠는데, 너무 비좁아서 옆으로 잘 수밖에 없었다. 밤에 계호원이 “취침!!!”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모두 앉아있다가 일사불란하게 침대에 누웠고, 행동이 느려 눕지 못한 사람은 앉아서 잤다.

부엉이가 우는 다음 날에 꼭 사람이 죽는다는 루머도 돌았다. “어젯밤에 또 부엉이가 울었다. 오늘은 또 누가 죽어나가겠나.” 하며 이 곳에서 부엉이가 신비한 죽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또 꿈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 어떤 꿈을 꾸면 오늘 면회가 온다는 말도 있었다. 숫자 4는 보통 죽음의 상징이지만 웬지 여기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변했다. 날짜에 4가 포함이 되는 날에는 그날 하루를 잘 보낸다는 말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나의 생일이 돌아왔다. 교화소에서 맞이하는 첫 생일이다. 남편은 동태국을 비롯한 갖가지 귀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해왔다. 미숫가루, 평평이 가루, 태식 과 같은 요깃거리 뿐만 아니라 일할 때 필요한 장갑, 농사할 때 쓰는 발목까지 오는 신발, 시기적절하게 필요했던 약과 주사도 챙겨왔다. 힘든 감옥 생활 중 나의 유일한 숨구멍은 남편이었다.

감옥의 시간은 지옥의 터널을 걷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의 이력서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오점이라고 생각하며 내 나라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가끔씩 악몽을 꾸다. 눈을 떠보면 나는 아직도 교화소에 있다. “이제 한국은 어떻게 가지?” 하고 걱정을 하는 꿈이다. (다음호에 계속)

터키 Turkey



인구 : 83,836,000명

주요 종교 : 이슬람(99%), 기독교(0.2%)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170,500명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25위, WWL2020-36위

기독교박해 지수 : 68.95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의 억압, 종교적 민족주의

터키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터키 사회 내 극심한 종교적 민족주의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압박을 주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종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슬람교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받는다. 터키의 기독교 박해지수는 201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2020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향한 실제적 박해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터키 내 기독교 공동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터키의 이슬람은 열성적 민족주의와 완전히 혼합되어 있다. 정부의 공격적 논리는 다른 소수의 소리에 조금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교인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아웃리치(길거리전도)는 거의 불가능하며 극심한 사회적 반발을 야기한다.

격렬한 광신적 민족주의는 터키 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준다. 가장 큰 박해는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일어난다. 보편적인 인식은 진정한 터키인은 무슬림이라는 것이다. 개종은 단지 가족의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터키의 정체성을 모욕”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개종은 법정소송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슬람과 민족주의의 혼합은 대체로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시리아인들과 같은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대부분 터키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적 구조

적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 부족법과 관습들은 여전히 터키 동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로 작동하고 있다.

2016년 쿠데타 실패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자세를 버리고 터키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개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언론은 통제되고 있으며 언론 통제에 반대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있다. 게다가, 에르도안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수감된 많은 언론인들을 고려하면 놀랄 일이 아니다. 지금은 터키 기독교인들이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에르도안 정권은 공개적으로 수니파 이슬람을 국가 종교 규범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밀려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WCD(World Christian Database)의 2020년 추산 통계에 따르면, 터키 인구의 98.3%가 무슬림이며, 그 중 1/3이 알레비스파/시아파 무슬림이다.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수니파 무슬림이며, 기독교의 인구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터키는 현재 이슬람식 규범과 가치체계를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속주의가 팽배했을 때, 터키 정부는 세속주의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어떤 종교도 확산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터키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다. 에르도안 대통령 정권 이래로 세속주의는 점차 감소되었고 터키는 이슬람의 영향을 더욱 받아들이고 있다.

역사와 정치적 상황

터키의 역사는 민족성과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때 아르메니아, 시리아,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량학살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학살은 1920년대까지 확대되어, 지금은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터키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동유럽의 발칸반도, 그리고 지금의 터키지역을 차지했던 오스만제국의 후예이다. 오스만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패전국 진영으로 세계1차대전에 참여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분할할 때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터키지역을 제외한 모든 영토를 잃었다. 터키인들은 완전히 굴욕감을 느꼈고 이것은 터키 민족 운동의 발발로 이어졌다. 그렇게 터키 독립 전쟁이 일어났고 점령군들은 추방되었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수립되었다. 1922년 11월 1일, 의회는 공식적으로 술탄을 폐위하고 623년 간의 오스만 통치를 종식시켰다. 그리고 로잔조약을 통해 1923년 7월 24일에 “터키공화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세속공화국으로의 변화를 이룬 터키는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었고, 1945년에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2002년 에르도안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터키는 큰 변화를 맞는다. 2014년에 이르러 에르도안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6년에 일어난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종교적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는 더욱 권위가 높아졌다. 2017년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민주주의로 헌법을 개혁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과 절대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2018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터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로잔조약에 근거한 터키 법률에 따른 종교는 수니 이슬람, 그리스 정교회, 알라미안 사도교회 그리고 유대교만 인정된다. 터키국민의 종교는 여권이나 신분증에 기록된다. 다른 대안이라면 종교 항목을 빈칸으로 두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신분증에 종교항목이 기록되지 않지만 신분증 전자칩 내에 등록되어 있고,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종교가 무엇인지를 답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여전히 일반적이다. 터키는 세속국가로서,

이슬람이나 이슬람법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있다.

터키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가족으로부터의 탄압의 정도와 속성은 가족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로의 회심은 대체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을 글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드러내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박해를 야기한다. 특별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개종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괴롭힘은 터키 내에서 일반적이고 기독교 상징물을 노출하는 것은 적대감과 물리적 폭행을 야기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이중적 삶을 살고 자신들의 개종을 감추고 살아간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감추어야만 한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 **가정 영역** : 기독교 어린이 괴롭힘 사례가 수 년째 보고되고 있다. 특별히 개종한 기독교인 자녀들이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개종했는지라도 아이 부모의 신분증에 무슬림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 이슬람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분증 교체가 수월해져 수업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개종자들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 신분증을 바꾸지 않고 있다. 터키 교육 커리큘럼이 일반적으로 터키 민족주의자들과 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자체가 가지는 차별이 존재한다. 2013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입양된 터키 어린이들을 터키로 되찾아 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적대적인 환경은 기독교

인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기독교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수니 무슬림으로 등록이 된다.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알려졌을 때, 개종자는 이혼의 위협을 받아야 하고 유산상속권리마저 잃게 된다. 개종자들은 결혼식을 진행하거나 장례를 치를 때도 어려움을 겪는다. 죽는 순간에도 존중받지 못하며 이슬람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뤄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의 묘지신청은 거부되기도 한다.

• **지역공동체 영역** : 기독교인은 공직에 채용될 수 없고 일반 취업에 있어서도 차별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고용인이 정부와 연관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죽음의 위협과 같은 박해는 많은 터키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슬람과목은 교육제도 내에 필수과목이며, 비 무슬림학생들은 거부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고가 되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게 된다. 기독교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당한다. 터키대학에서 공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거나 대학 수준에서는 교수가 될 수가 없다. 더욱이, 수 백개의 이맘 하티프 학교들(Imam Hatip School)이 2018년 이래로 총 5000개가 넘는 이슬람교육학교를 육성하였다. 하티프 학교는 터키 교육 제도와 함께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각각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고, 자신들의 모든 대화가 정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내는 몇몇 미디어와 같이, 이곳의 신문 역시 위협적이다.

• **국가 영역** : 터키헌법은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이다. 엄밀히 말해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모든 다른 관념과 사상 위에 터키민족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분명하다. 공공 영역의 일자리, 국가의 안보 및 법 집행 기관에 기독교인은 채용될 수 없다. 신분증에 어떤 종교인지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지만, 신분증 내 칩 속에 기록

되어 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적 영역에 드러낼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우며, 터키정부 또한 비판적 사고에 우호적이지 않다. 특히 남동부지역이나 다른 시골지역의 회심한 목회자들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공개함으로 인해 경찰이나 군인들로부터 무례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건축이나 예배처소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AKP당의 집권 아래 국가적 민족주의의 기승으로 비 무슬림 기업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연관된 소송 건들에 있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교회 영역** : 새로운 종교단체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는 “협회”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과정이 매우 어렵고 일부 신청 건들은 거부되기도 했다. 새로운 종교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 모든 활동들은 감시되며 외국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교회들은 의심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교회 건물을 보수하거나 개조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많은 교회, 신학교, 학교 등 과거에 몰수된 건물들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독교 지도자 교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스정교회가 할키(Halki)지역에 신학교를 열고자 캠페인을 벌였지만, 1970대 이래로 계속 폐쇄된 상황이다. 비공식적인 훈련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보호받고 있을지라도, 특히 IS에 의한 위협 이후로 터키의 비밀 경호국(MIT)은 기독교 단체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정된 교회 시설 밖의 활동은 포교활동으로 간주되며 해당지역 공무원과 공동체의 제재를 받게 된다. 2016년 쿠데타 시도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모든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제한되면서 교회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개종자들을 기존 교회 내로 통합하는 것 또한 공동체들의 제제로 어려워졌다. 터키어로 되

어있는 기독교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료들이 기독교 포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교회 리더쉽의 비자발급은 쉽지 않다. 많은 외국인 종교 사역자들이 비자발급을 거부 당하거나 영주권이 재발급되지 않았다.

※ **긍정적 변화 예**: 100년만에 처음으로 이스탄불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2019년 8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리아 정교회 성 에브라임 교회의 초석을 놓으며 건축이 시작되었다. 교회 건물 공사는 2022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WWL2021 박해보고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기간)

신앙 때문에 살해된 크리스천 수	2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학교, 병원, 묘지 등) 공격 건수	11
신앙 때문에 구금되거나 투옥된 크리스천 수	3
신앙 때문에 납치된 크리스천 수	2
신앙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크리스천 수	22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재산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3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피신해야 한 크리스천 수	1

※ 2020년 7월,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하기아 소피아)을 모스크로 전환 결정

※ 2020년 1월, 동남부: 카톨릭 사제의 부모, 마을에서 마지막 남은 기독교인으로 실종, 피살

※ 2019년 11월, 디야르바키르: 터키 가정교회 연루 한국인 김진욱씨 칼에 찔려 피살

터키 교회 역사

터키에서 기독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선교활동으로,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초대교회 가장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들이 세워졌다. 성경 계시록은 서부 터키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로 시작한다.

콘스탄틴 대제(AD. 306~337년) 치하에서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다. 도시 비잔티움(콘스탄티노플-현재의 이스탄불)은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1054년에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



터키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가 나란히 있는 모습
 성소피아 성당(하기아 소피아/아야 소피아): 536년에 지어져 수백년간 세계 최대의 성당이었으나 1453년 모스크가 됨. 1934년부터 박물관으로 이용되다가 2020년 7월 다시 모스크로 전환 결정. 성화 일부를 지우고, 이슬람 문양을 붙여 성전을 훼손한 모습

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비잔티움은 동방교회 혹은 정교회의 중심이자,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 1453년에 오토만 투르크족이 이 제국을 점령하면서 터키의 크리스천들은 무슬림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슬람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이 나라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19세기 이후 오토만제국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영토들도 잃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오토만 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에 섰다. 1915년에(후로 몇년간) 1백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인(시리아인)들이 대학살을 당했다. 이는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극심한 약화와 함께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향인 아나톨리아 전역에서 러시아와 긴장을 일으켰다. 오토만 제국은 결국 1917년에 무너졌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터키에는 해결할 문제들이 많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양한 소수종족들과 그들의 종교의 지위였다. 새로이 만들어진 터키에서, 그리

스인, 아르메니아인, 시리아인들은 소수민족으로서 심한 차별에 부딪혔다. 1923년까지 압박이 증가했다. 수백만 명이 이주를 당했다. 그리스인의 상당 부분이 터키를 떠나 그리스로 가야했다. 이는 그리스 정교회의 지위 뿐 아니라 터키에서 크리스천들의 지위도 약화시켰다.

터키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80,000명(46.8%)
카톨릭	45,000명(26.3%)
개신교 기성교단	24,700명(14.4%)
독립교단	10,800명(6.3%)
무소속	10,000명(5.8%)
이중소속	0명(0.0%)
합계	170,500명(99.7%)

터키의 외국인 크리스천 거주자 추방이 중지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020년 7월까지 18개월간 50명 이상의 외국인 개신교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터키 거주비자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 당했습니다. 2019년에는 최소한 23명의 외국인 크리스천들이, 유효한 터키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입국을 제한당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여행업 독일인 크리스천 추방

58세의 독일인 크리스천 한스(Hans Jurgen Louven)는 터키 남서부 에게해 해안 리조트도시 무글라(Mugla)지방에서 20년간 여행업을 해왔으나, 2019년 9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터키의 거주비자 갱신 거부와 함께 10일 내로 터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비자 거부 사유 항목 15개 모두 빈칸이고 “기타 사유” 항목 만이 체크되어 있었다. 사유 설명은 없었다. 그의 ‘아가페’ 여행사가 터키를 크리스천

들과 연결시킨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집과 모든 재산과 터키의 대학에 다니는 외동딸까지 홀로 남겨둔 채로 터키를 떠나야했다.

터키인 목사의 외국인 사모 추방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조이(Joy Anna Crow Subasiguller)는 터키인 목사와 결혼하여 터키에서 3자녀를 낳고 7년째 살고 있었으나 2020년 6월 갑자기 터키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터키를 떠날 준비를 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조이가 결혼 전에 터키에서 산 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 이상이고, 남편은 터키 국민이며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주부인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첫머리 야기까지 떼어놓고 터키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조이 사모가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터키 정부의 추방명령을 받은 조이(Joy) 사모와 가족



터키 정부의 추방명령을 받은 크리스천 사업가 한스(Hans)



터키 감옥에 2년간 수감되었던 미국인 브런슨(Brunson) 목사 부부



터키에서 피살된 김진욱 형제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 지역 크리스천 1000 가정 구호

작년 11월에 발생한 에티오피아 티그레이(Tigray) 지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혼돈과 여러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만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표적을 삼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고조되어온 적대감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중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에티오피아가 내부적으로 파열될 위기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정학적으로 현재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종교자유파트너십(RLP)의 엘리자베스 켄달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붕괴는, 대단한 중요

성을 갖는 기독교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고, 기독교 고대 기독교 문화의 가장 풍요한 유산의 쇠락을 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에티오피아 교회는 엄청난 선교적 비전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이(수상과 같은)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에티오피아 전역에, 아프리카 뿔 지역 전역과 중동에, 사헬지역과 풀라니 족 가운데에도, 아시아와 유럽, 미국까지도 선교사들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오픈도어 사역 리더, 야신은 엘리자베스의 말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에티오피아 교회가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가 있다



티그레이 Tigray 상황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몇 달 간 정치적인 긴장이 있던 후에, 이전 정권을 지배했던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에티오피아 북부정부군을 공격했다. 그 후로 수천명이 죽었고 520만 명이 인도적 구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UN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이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전은 이웃한 아파르(Afar)와 암하라(Amhara)지역으로 번졌고 적어도 50만 명이 집을 잃고 국내난민이 되었다. UNOCHA는 8월 보고서에서 폭력이 조금이라도 더 증가하면 현상황에 더해 광범위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면 바로 지금입니다. 티그레이 위기는 그 지역에서 이미 소외당하고 있던 복음주의 소수 공동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교회는 십자포화 속에 갇힌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적대감이 종식되기를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연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리스도의 몸, 곧 전 세계 교회들이 이 고통받는 크리스천 공동체들을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하고 또한 그렇게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후원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티오피아의 평화를 위해 열렬히 기도해주세요. 어느 한 편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뻔한 거짓말들과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에티오피아의 국제적 파트너들에게 영향을 주어 흔들리게 하는 것을 볼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 에티오피아 전역에 평화가 회복되고 화해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과 지혜가 에티오피아 국가지도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주세요.
- 충돌지역들(티그레이, 암하라, 아파르 및 기타 지역)에서 집을 떠나 국내난민이 된 수많은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생필품을 비롯한 기초적인 생활의 필요도 공급받지 못하고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에티오피아에서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교회를 포함하여 기독교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힘을 잃지 않고 굳건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에티오피아의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1980년대 이후로 에티오피아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제자로 잘 훈련되고 연합된 박해받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잘 준비되고 강해져서 온전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대비 훈련과 지원
- 직업훈련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여성과 청년 역할 증진 사역
- 새신자 훈련과 지도자 훈련을 통한 사역의 강화

티그레이 사태 발발 후, 우리는 1,000가정 이상의 소외된 크리스천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고, 그들이 충돌사태의 결과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혜자 중의 한 분인 한 목사님은,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 때문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도움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랑의 결과이지요...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깊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에리트레아, 투옥자 교회지도자들 기도 요청



에리트레아 지도와 감옥분포도

2022년 5월이면, 에리트레아 정부가 수니파 이슬람, 카톨릭, 루터교, 정교회와 극소수 ‘순종적인’ 그룹들을 제외한 모든 종교 단체들을 폐쇄한지 20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수 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불법 집회로 고소되어 체포당하고 에리트레아 전역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여러 저명한 목사님들이 10년 이상 수감되어 있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아프리카 오픈도어 사역책임자는 에리트레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2021년에도 교회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으며, 팬데믹과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 후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도 상황이 여전히 심각함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미인가’ 종교에 소속된 에리트레아 국민들은 가정을 급습당하고 투옥되고 고문당할 위험에 있습니다; (미인가) 종교단체 가입을 철회하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체포되어 재판 없이 또한 항소의 기회 없이 장기적으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초과수용된 감방 또는 컨테이너에 구금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고문을 포함

해서 구금자 학대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10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저명한 목회자들 중 대부분이, 외부인과의 접촉이 허락되지 않는 상태로, 에리트레아 수도 아스마라에 있는 ‘웁겔 메르메라’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은 가장 잔인한 심문이 이루어지는 곳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독방의 일종인 ‘셀라’들이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심문을 당하고 발끝까지 온몸 전체가 구타를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투옥 중인 에리트레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하일레 목사(Haile Naigzhi):



Kale Hiwot교회 지도자였던 하일레 목사님은 내년 5월이면 17년째 수감되는 것입니다. 하일레 목사님은 2004년 5월23일 아침에 자택에서 체포되어 아스마라 웁겔 메르메라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현재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정부가 체포하기 원한다는 신뢰성 있는 정보에 따라 사모님과 자녀들은 2013년에 에리트레아를 떠나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2. 키플루 박사(Kiflu Gebremeskel): 2004년 5월 새벽 5시에 아스마라 게제레트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된 키플루 박사는 에리트레아 순복음교회의 지도자



였습니다. 그는 남서부 순복음교회를 창립하고 담임목사로 섬겼고 에리트레아 순복음교회 실행위원이었습니다. 담임목회자가 되기 전에 키플루 박사는 1999년까지 아스마라 대학교에서 수학교수이자 교학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으로 Ph.D를 받은 분입니다. 투옥된 이후 키플루 박사는 아내와 4자녀들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녀 중 2명은 해외에서 살고 2명은 에리트레아 국내에 남아있습니다. 키플루 박사는 삼엄한 감시 하에 자주 병원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밀리언 게브레셀라시 목사(Million Gebreselasie): 밀리언 목사님은 2004년 6월3일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석방되어 망명지위를 얻은 테스파시온 하고스(Tesfason Hagos) 목사님이 그의 교회와 사택을 방문한 후 5일 만이었습니다. 밀리언 목사님은 테스파시온 목사님의 소지품을 돌려주러 가는 중에 경찰의 검문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2개월간 구류되었 있는 후에 웁겔 메르메라 감옥에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감중입니다. 밀리언 목사님은 마사와(Massawa) 병원의 유능한 마취과 의사이자 마사와레마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오래 전에 부모님이 작고하시고, 하나뿐인 여동생은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4. 정교회 사제 푸춤 게르레네구스(Futsum Gebrenegus): 푸춤 사제는 2004년 11월에 정교회 갱신운동에 관련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에리트레아에서 유일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는 1명으로 현재 에리트레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체포될 당시 어린 아이로, 현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5. 정교회 사제 게브레메딘 게브레기오르시스(Gebremedhin Gebregioris): 게브레메딘 사제는 전문적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역시 정교회 내의 갱신

운동에 관련한 혐의로 2004년 11월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6명의 장성한 자녀가 있고 대부분 에리트레아에 살고 있습니다.

6. 정교회 사제 테크레아브 멩기스테아브(Tekleab Menghisteb): 테크레아브 사제는 매우 존경받는 물리학자이자 정교회 사제로 2004년 11월에, 정교회 갱신운동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후 가족들은 해외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안과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7. 키다네 목사(Kidane Weldou): 키다네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자 그 이전에 여러 해 동안 그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에리트레아에서 국제기독교연합회 실행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혼으로 4명(또는 3명)의 딸이 있으며 모두 에리트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키다네 목사님은 2005년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차량이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고 가족들은 그가 체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위의 다른 투옥자들과 마찬가지로, 키다네 목사님 가족 역시 그후로 목사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키다네 목사님이 안과 진료소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열악한 감옥 환경에서 당뇨병이 악화되어 시력에 심각한 손상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8. 정교회 총대주교 아부네 안토니오스(Abune Antonios):



올해 94세인 아부네 총대주교는 2007년에 직위가 해제되고 가택연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후로 현재까지 수도 아스마라에 이웃한 티라볼로(Tiravollo)의 자택에서 연금상태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방된 지도자

오그바미카엘 테클레하이마노트 목사(Ogbamichael Teklehaimanot): 2005년 1월에 체포되어 6년 후 석방되었다가 6개월만에 다시 체포되었던, 순복음 교회/ Kale Hiwot 교회 담임목사 오그바미카엘 목사님은 2018년 석방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소말리아, '파투마' 자매 이야기

밀수업자 무슬림 여성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돌이 되다

‘무슬림 여성’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억압받는 아내 또는 딸로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연상됩니다: 약하고 무력하고 예속되어 학대당하는 상태. 그러나 소말리아 여성들은 그들의 종교가 부여하는 지위보다 그들의 거친 환경을 더 닮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르카(이슬람 여인이 입는 옷)는 열정적이고 유연하고 지력이 있고 헌신된 여인의 모습을 숨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말리아 여인은 일단 충성을 맹세하면 끝까지 갑니다. 궁핍에 풍성한 한 하나님께서 소말리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적적으로 사용하신 파투마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강인한 성품 때문에 파투마는 교회의 모퉁이돌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시절, 결혼.

“저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라는 동안 기독교는 몰랐어요. 소말리아는 자국민100퍼센트가 무슬림이라고 믿는 나라예요.”

많은 소말리아 아이들처럼, 파투마도 엄마를 모른다. 파투마를 출산하며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모와 재혼하셨는데 이모가 흑암의 세력을 집안으로 들여왔다. “내가 7살쯤 되었을 때 악령숭배의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저는 그걸 방해하곤 했어요.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자라면서, 파투마는 기독교가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소말리아의 한 저명한 여성에 대해 듣고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여성은 소말리아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항거했다. “그 여성은 한 정치가의 아내였어요. 이슬람에서 여자들에게는 교육이 허락되지 않죠. 그러나 그녀는 교육을 받았어요…그리고 나는 그녀가 크리스천이었다는 걸 들었을때 내 안에서 무언가 기쁨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녀에 대해 들은 후에, 나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 손을 들고 구합니다. 나의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즉각적으로 파투마의 개종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날 한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파투마는 십대가 되자,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거기서 한 친구가 그녀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충고를 했다. 처음에, 파투마는 형식적인 크리스천 남편을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파투마는 ‘(남편의) 기독교’가 자기가 바라던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거기에는 의식과 행위만 가득하고 인격적 관계가 없었다. 혼란을 느끼며, 파투마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진실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파투마 부부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지만 결혼이 오래 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혼했다. 파투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정신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녀는 밀수를 시작했다. “나는 카트(현지의 마약성 식물)에 중독되었어요. 밤늦도록 길에서 일했기 때문에…20주간 연속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몇시간 밖에 못 잤어요. 카트를 씹고, 시사(대마초)를 피웠고, 술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가버리고, 나는 남편이 없는 과부이고…나는 계속 생각하고 바랬지요. 그렇게 중독에 빠져 살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어요.”

치유, 개종, 제자훈련

어느 날, 또다른 밀수 일을 하기 직전에, 파투마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었을 때 목소리가 안나오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쓰면서 무당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무당이 처방한 ‘약’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파투마는 다시 예수님께, 정확히 알지 못할 지라도, 기도했다. “나는 이 약을 집으로 가져와서는 이 약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그래서 기도했지요, ‘만일 당신이 이세상의 구세주이시거든, 진정한 구주라면, 당신은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약이 나를 죽이면, 당신이 나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제발 꼭.’” 그 약은 파투마를 죽이지도 낮게 하지도 않았다. 파투마는 더 아파져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밀수업 일도 다 잃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 또 다른 꿈을 꾸었다. “나는 너무 힘이 없어 잠자리에 누웠어요. 잠이 들지는 않았지요. 그때 무언가가 보였어요. 놀라운 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에서 한 손이 나와 나를 만졌어요. 나에게 말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보호하는 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즉시로 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나는 아주 크게 소리쳤어요. 내 목소리는 회복됐고, 내 질병은 떠나갔어요.”

그 음성은 파투마에게 다른 마을로 가라고 지시를 했고 파투마는 순종했다. 그녀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고, 거기서 한주간 동안 제자양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파투마는 크리스천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제자훈련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파투마는 교회를 찾았고 세례도 받을 수 있었다. 파투마의 마음 속에는, 복음을 가지고 고향 사람들에게 돌아가야겠다는 한 비전이 잉태되었다.

부르심, 박해

파투마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오픈도어가 후원하는 훈련과정에 참가했다. 거기서 한 소말리아 크리스천을 만났다. 그는 파투마가 소말리아로 돌아가도록 초청했고 파투마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는 파투마가 자녀들과 재결합할 수 있게 하셨고 그녀와 비전을 공유하는 믿는 남편까지 보내주셨다. 천

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님은 파투마 부부에게 사람들을 모아주셨다.

“…그런데 우리 중의 한 형제가 가룟유다가 됐어요.” 그 형제는 파투마 부부를 당국에 신고했다.

그때, 파투마는 세번째 아이를 임신중이었다. 출산을 앞두고 한달도 안되는 시점에 경찰이 파투마의 집으로 들이닥쳐 가족을 체포했다.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2019년의 일이다.

“그날 남편과 나는 아이들과 집에 있었어요. 저녁 8시나 9시쯤 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제자훈련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우리는 많은 시련이 있으리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때 경찰이 우리집에 온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성경책들을 숨기라고 말했어요. 경찰은 차를 타고 와서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파투마는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물었다: “원하는게 무엇이죠? 무얼 찾으시나요?” 경찰들이 자기들은 성경(기독교 활동의 증거물)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파투마는 이렇게 말했다.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결혼식날 선물로 받은 성경을 찾아냈고 우리를 체포했어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을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파투마의 성도들은 흩어져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다.

파투마는 경찰서 유치장에 자녀들과 함께 갇혔고, 남편은 감옥으로 보내졌다. 파투마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녀는 제왕절개 수술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되는 중에 있었고,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압박감 아래 있었다. 또 다른 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천식을 앓았다. 파투마는 계속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떠올렸다. “감옥에 있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말씀들로 계속해서 저를 위로해주셨어요. 풀려나기까지 47일간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했

습니다.”

파투마 부부가 투옥된 후에, 위협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사망증명서에 서명하도록 만들었어요…그들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지금 당장 예수를 부인해야해’ 그래서 우리는 말했지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사망증명서에 서명하겠습니다.’ 경찰은 두 번 더 같은 강요를 되풀이했다.

“그후로, 셰이크들(이슬람 지도자들)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보통은 그렇게 존경받는 인사들 면전에서 얼굴을 똑바로 보며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막 13:11)”

파투마가 셰이크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은 파투마의 아들들에게로 갔다. “그들은 우리 큰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에게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그 밖에 여러 다른 것들도 사줄게, 너의 엄마는 너희 가족을 배신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네 가족을 배신해야해.’ 우리 아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거절했어요.”

이뿐 아니라 다른 여러 기술을 사용하여 경찰은 파투마와 그녀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슬람으로 재개종할 것을 강요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계의 많은 성도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준 것이 그 형제자매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나와 내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머리털 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요.”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또

전세계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후

갑자기, 파투마와 가족들이 풀려났다. “아무런 일 없이, 우리는 풀려났어요.”

이제 파투마 가족은 소말리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성경말씀 디모데 전서 6:12을 좋아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픈도어는 파투마 가족에게 집세와 양식, 의약품 등의 일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투마는 당뇨와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파투마의 기도 요청:

- 첫번째 기도제목은 제가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원하는 것은 저의 조국 소말리아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도 소말리 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가서 섬기고 싶어요.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내게는 많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담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아이들을 길러주시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소말리아에는 아주 적은 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말리아의 교회들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가족이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남편은 40명의 남자들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남편의 상황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세요

WWL2021 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31

방글라데시



인구

1억 6,980만 명 / 기독교인 903,000 명

지도자

셰이크 하시나 총리

박해지수 (4점 증가)



방글라데시는 점점 더 이슬람화하고 있다. 정부가 무슬림 강경파들을 달래기 위해 점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크리스천 단체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가 월드와치리스트(WWL) 박해순위에서 8단계 뛰어오른 이유이다. 무슬림, 힌두교, 불교 또는 기타 부족 종교로부터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심각한 제재와 차별과 학대를 겪는다. 이들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가정교회들로 모이고, 비밀 그룹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다.

오픈도어는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여 방글라데시의 박해받는 교회들을 강건하게 합니다. 훈련, 성경배포, 글자교실,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젝트, 긴급구호 등을 진행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이들이 공격들로부터 보호 받도록.
-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같은 로힝야족들로부터 오는 박해에 직면하는 로힝야 크리스천들을 위해.
- 차별받는 방글라데시 크리스천들을 위해 코로나 긴급구호를 진행하는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위해.

35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인구

490만 명 / 기독교인 370만 명

지도자

파우스틴-아칸지 투아데라 대통령

박해지수 (2점 감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은 2013년 이래로 총돌과 싸움이 거의 끊이지 않았다.

국가의 상당부분을 무장단체들이 점령하고 있다.

이들이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학대를 자행한다. 많은 무장단체들이 특히 크리스천들을 타깃으로 한다.

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위협을 당한다; 교회건물이 불타고 약탈을 당한다. 무장단체들의 총돌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천명의 크리스천들이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나 난민캠프에서 살게 되었다.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성도들을 지원합니다. 박해대처훈련, 제자 훈련, 경제적 지원 프로젝트,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안정과 평화가 돌아오도록.
- 무장단체들의 표적이 된 크리스천들의 보호를 위해, 무장대원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 국내난민캠프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WATER
LIFE
HOPE

생명을 흘러 보내는 희망의 식수 펌프



이슬람 무장세력의 크리스천 마을 공격이 끊이지 않는 북동부 나이지리아의 한 마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식수펌프가 설치되었습니다. 펌프에서 쏟아지는 맑은 물을 만져보고 바라보는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믿음, 공동체, 응답된 기도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설치한 이 식수펌프는 무슬림 이웃들에게도 혜택을 주며 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해지역 기독교 공동체를 전인적으로 돌보는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은 계속됩니다!
[희망의선물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한국오픈도어선교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후원요청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1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달/훈련	선물 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 포함	6\$ (7,000₩ ~)
	선물 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 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 지원 (SED)	선물 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 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순교자 가족 포함	40\$ (50,000₩ ~)
	선물 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 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 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 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시리아 난민 포함	50\$ (60,000₩ ~)
	선물 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투옥자 포함	50\$ (60,000₩ ~)
	선물 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예배장소 지원	100\$ (120,000₩ ~)

※ 기존 정기후원자님의 후원은 2021년 선물번호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다중선택 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3171/010-7548-3171) 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